

불 붙은 석유통 복도에 던져 연소확대

(본협회 방재연구부 제공)

- 소재지 : 강남구 역삼동
- 발화시간 : 86. 5. 5. 09 : 45
- 발화지점 : 5층 주방
- 화재원인 : 석유곤로 취급부주의
- 인명피해 : 사망 4명, 부상 2명

1. 건물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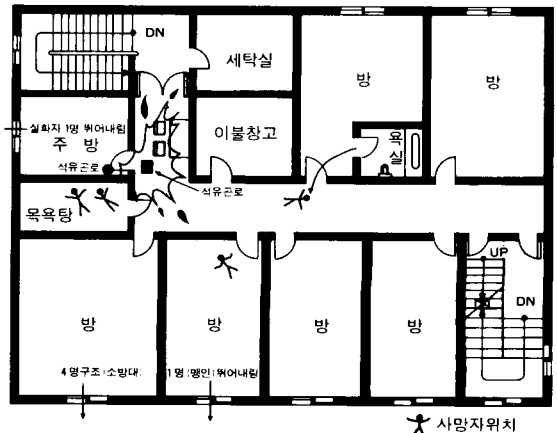
이 건물은 1984년 10월에 건축된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의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108㎡의 건물로서 1~2층은 안마시술소, 3~5층은 여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화재 발생층인 5층에는 종업원 대기실과 세탁실, 침구류 창고 및 취사를 하는 주방이 함께 위치해 있고 복도에는 식탁을 놓아 종업원이 여기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 이 건물의 내장재는 지층을 제외한 전층에 석고텍스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각층의 복도 바닥은 카펫을 깔아 놓았다. 난방은 중앙공급식으로 온수난방과 급탕을 겸용으로 사용하며 지층 보일러실로 부터 공급되고 있다.

한편 이 건물은 지하층과 3층이상의 층은 층별로 방화구획을 하여야할 건물이나 화재 당시에는 구획상태가 지극히 불량하였다.

2. 화재상황

화재는 당일 09시 45분경 5층 주방에서 일하던 주방장 P씨(여·47세)가 사용중이던 석유곤로에 불을 끄지않은 채로 석유를 주입하던 중 석유 통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당황하여 석유통을 집어던진 것이 카펫이 깔려있는 복도에 떨어져 카펫과 식탁, 의자 등을 태우고 층 전체로 확대되었다. 화재를 처음 안 종업원은 인터폰으로 1층 안내실에 알려 소방서에 신고토록 하고 다른 한명은 물과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였다. 나중에 다른 층에 있던 종업원들도 합세하여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으로 진화작업을 펴는 한편 손님들의 대피 유도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는 불길은 이미 확대되어 발화층에는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였으나 소방대의 적극적인 진화로 화재발생 약 10여분 만에 불은 완전히 소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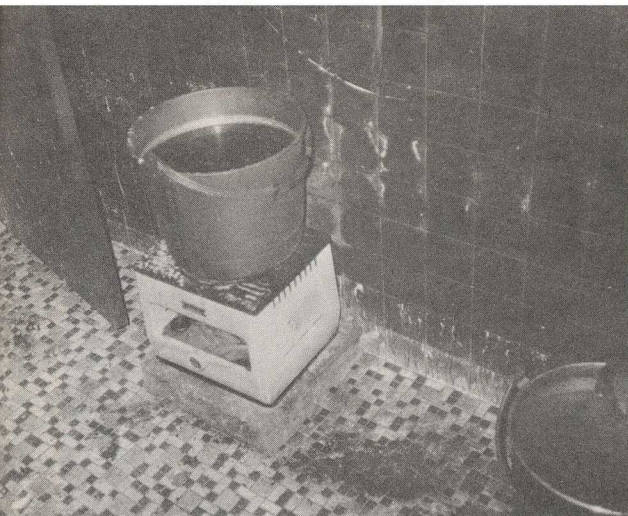
▲ 발화층 평면도 (5층)

3. 피난대피

불은 다행이 최상층에서 발생하여 아래 층의 손님과 종업원들은 쉽게 피난할 수 있었으나 발화층인 5층에는 주로 맹인 안마사들이 대기,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스스로 화재를 감지한 인원은 아래층으로 피난하였고 불을 낸 P씨와 맹인 1명등 2명은 창 밖으로 뛰어내리다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었으며 방문을 닫고 방에 대피하여 있던 맹인 4명은 긴급 출동한 소방서 고가 사다리차에 구조되기도 하였으나 복욕탕에 대피하여 있던 맹인 2명과 다른 방에 있던 맹인 1명은 순식간에 확대된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사망하였다. 정상인인 경리 여직원도 복욕중 화재가 난 것을 알고 맹인 안마사들을 구하려다가 함께 질식사망하기도 하였다. 이 사고로 180㎡가 소실되었으며 1천 6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4. 소방시설의 설치 및 이용상황

- 소화기 : ABC분말소화기가 지하층 2대, 기타층 각 3대씩 비치되어 있었으며 화재시 사용되었다.
- 옥내 소화전 : 지하층, 1층~5층에 각 1개소씩 6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시 종업원에 의하여 사용되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 각층 1회로씩 7개회로(옥탑층 1개회로 포함) 설치되어 있었으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전에 화재발생 장소에 있던 종업원들이 이미 화재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자동화재탐



▲ 발화원이 된 석유곤로(주방내에 있는 이 곤로에 불을 끄지않은 채로 석유를 주입하다가 화재가 발생)

지설비가 작동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소방지시설 : 지하층과 3층 이상층은 층별로 방화구획을 하여야하나 지하층은 1층과 구획이 되어 있지 않았고 다른 층도 화장실의 배기 닥트에 방화댐퍼를 설치하지 않는 등 방화구획이 불량한 상태였으나 이번 화재의 연소확대와는 무관하였다.

●기 타 : 구조대 및 줄사다리가 각각 2개씩 비치되어 있었으나 사용하지 못하고 출동한 소방대의 고가 사다리차에 의해 몇사람이 구조되었다.

5. 문제점 및 대책

가. 화기취급 부주의

곤로나 난로등 위험물을 연료로 하는 화기취급 기기는 반드시 불을 끄고 열기가 가신 다음 연료를 넣어야 하며 주변에 가연물이 없는 제한된 장소에서 취급하여야 함에도 협소한 실내에서 곤로에 불을 끄지 않은 채로 주유를 하여 화재가 발생, 불이 순식간에 층 전체로 확대되게 하였다.

종업원의 경솔한 행동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내게 된 것은 평소 화재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지에 기인한 것으로서 화기 취급자는 물론 종업원 모두 정기적인 방화교육을 실시하고 항상 불조심을 생활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피난시설

전층에 피난계단 2개소와 피난기구 4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갑작스런 화재로 5층 종업원(대부분 맹인 임)들이 옥외로 탈출하지 못하고 옥실 안으로 대피함으로써 문틈으로 침투한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하였다. 지체부자유자가 다수 상주하고 있는 이러한 특수 건물에서는 일반건물과는 달리 지체부자유자가 쉽게 피난이 이루어지도록 대피 시설과 피난훈련을 반복 실시하여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6. 교훈

우리는 항상 “실마”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습관적으로 위반하거나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위험은 언제나 한결같이 지켜야함에도 이 단순한 사실을 외면하는 사소한 규칙위반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불조심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 설치된 모든 재해 방지시설도 항상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건물의 특수성에 맞게 운용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